

키에르케고어의 간접전달로서 '심리학적 실험' 연구

유 영 소*

- I. 들어가는 말
- II. 실존의 변증법적 운동과 저술의 이중운동
- III. 간접전달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 고찰: 안티-클리마쿠스의 관점에서
 - 1. 그리스도교 진리의 직접전달 불가능성
 - 2. 간접전달의 두 가지 방법
- IV. 심리학적 실험의 위상
- 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간접전달로서 심리학적 실험'을 주제로 한다. 여럿의 가명 저자

* 홍익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6647)

* DOI <http://dx.doi.org/10.17527/JASA.57.0.11>

(pseudonymous author)들을 사용한 키에르케고어(Søren Kierkegaard, 1813-1855)의 간접전달(indirect communication)은 그 의도와 양식에서 유례(類例)를 찾기 힘든 독특한 저술방식이다. ‘심리학적 실험(또는 상상의 심리학적 구성)¹⁾은 상상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문학적 전략이며, 전달자를 숨기는 간접전달의 한 범주다.²⁾ ‘심리학적 실험’이 적용된 두 저서, 『반복: 실험적 심리학의 시도』(1843)³⁾와 『인생길의 여러 단계들』의 3부 「“유죄냐?”/“무죄냐?” 수난 이야기」(1845)와 다른 가명 저술들과의 차이는 상상의 창작자(an imaginative constructor)와 창조된 인물(character)의 명확한 구분에 있다. 이 두 저서만이 ‘원저자(키에르케고어) — 가명 저자(상상적 구성의 창작자) — 창조된 인물’이 뚜렷이 구분되는 중층 구조를 지닌다. 키에르케고어는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은 전달 전략을 구사했는가? 본 논문은 간접전달의 목적과 전달 형식을 규명함으로써 간접전달의 한 범주로서 심리학적 실험의 위상을 밝히고자 한다.

키에르케고어는 가명 저술과 실명(實名) 저술을 동시에 발표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간접전달과 직접전달을 모두 사용했다. 따라서 “간접전달은 직접전달과 대립”⁴⁾하지만, 가명 사용 유무가 대립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키에르케고

-
- 1) ‘상상의 구성(imaginary construction)’은 키에르케고어의 ‘Experiment’를 영어판 역자 홍(Hong)부부가 의역한 것이다. 당시 덴마크에서 ‘Experiment’는 외래어로서 이에 상응하는 일반적인 덴마크어 표현은 ‘Forsøg(test, trial, venture)’나 ‘gjør Erfaring(to make experience)’였다. 본고에서는 맥락에 따라 두 용어를 교차 사용했다. Søren Kierkegaard, “Historical Introduction”, *Kierkegaard's Writings, VI: Repetition*,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pp. xxi-xxii; 유영소,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실험’」, 『미학예술학연구』 54집 (2018), pp. 135-170 (DOI: 10.17527/JASA.54.0.05), p. 143.
 - 2) J. Stewart, S. M. Emmanuel & W. McDonald (ed.), *Kierkegaard's concepts: Tome II: Classicism to Enthusiasm*, KRSRR vol. 15 (Surrey: Ashgate Publishing 2014), p. 159; 본고의 II장 3절을 참조할 것. 개념 사진들은 저자명을 뺀 나머지 서지사항만 표기.
 - 3) 키에르케고어의 저술들은 본문과 각주에서 첫 번째만 제목을 정식 표기하고 이후로는 저자명 없이 제목만 약어(참고문헌 참조)로 쓴다. 우리말 번역본이 있는 경우 영문판과 한글판 쪽수를 병기한다. 이하 본문에서 『반복』과 『단계들』로 표기.

어의 간접전달은 그리스도교의 역설을 한낱 지식으로 바꿔 직접적으로 전달한 당대 그리스도교계(Christendom)의 풍조에 항거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이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정황을 빼고 양자의 대립을 논할 수 없다. 직접전달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교 진리의 모순을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독자를 자유에 의한 선택 앞에 세워 '주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간접전달의 근본 취지다. '심리학적 실험'의 수행 목적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키에르케고어의 저술에서 이런 목적은 제한적으로만 언급된다. 뿐만 아니라 간접전달에 관한 논의 자체가 심미적 저술들 바깥에서 이뤄진다.

심미적-윤리적-종교적 실존의 변증법적 운동에 상응하는 키에르케고어 저술의 변증법적 구조 안에서, 가명 저자들은 각기 다른 실존 영역을 재현한다. 때문에 자신이 처한 실존 영역을 넘어서 발언하지 않는다. 키에르케고어는 “제3자인 가명의 인물이 그런 목적(저술 목적-필자)을 알 까닭이 없다”⁵⁾고 말한다. 키에르케고어 자신을 제외한, 간접전달에 대한 최종 발언자는 가장 높은 실존 단계의 가명 저자 안티-클리마쿠스(Anti-Climacus)다.⁶⁾ 그리스도교적 관점(the Christian

4) Søren Kierkegaard, *Practice in Christianity*,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 139, 『그리스도교의 훈련』, 임춘갑 옮김 (다산글방, 2005), p. 216. 이후 『훈련』으로 줄여 쓰고, 자주 인용되므로 본문의 인용 내용 옆에 (『훈련』 영문/한글 쪽수)로 표기한다.

5) 쇠얀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관점』, 임춘갑 옮김 (다산글방 2007), p. 299. 이후 『관점』으로 표기.

6) 키에르케고어의 저술에서 간접전달에 대한 첫 번째 명시적인 견해가 제시된 것은 『철학적 단편에 대한 결론으로서 비학문적 후서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 to Philosophical Fragments』(『후서』로 약칭)에서다. 이전에 『철학의 부스러기 Philosophical Fragments』에서도 간접전달에 대한 방법론적 반성이 발견되기는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후서』의 1부, 섹션 II의 제2장 “Possible and Actual Theses by Lessing”과 섹션 II 2장의 부록 “A Glance at a Contemporary Effort in Danish Literature”에 집중된다. 이후 1847년에 기록된 『일지』에서 키에르케고어는 커뮤니케이션과 산파술에 관한 일련의 강의 초안을 썼으나 완성되지 않았다. 『사랑의 역사』에서도 조금 언급되지만, 한층 명시적으로 간접전달을 다룬 것은 안티-클리마쿠스의 『그리스도교의 훈련』이다. Søren Kierkegaard, *Søren Kierkegaard's Journals and Papers*, vol. I,

standpoint)을 재현하는 안티-클리마쿠스는 『후서』(원제: 각주 6)의 가명 저자 요하네스 클리마쿠스(Johannes Climacus, ‘클리마쿠스’로 약칭)와 다른 저자들의 저술에서 이미 전달하려 했던 내용들을 많은 부분 반복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예컨대 클리마쿠스가 체계나 사변(思辨)과 대결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암시적으로 논한다면⁷⁾, 안티-클리마쿠스는 그리스도교계의 직접전달에 맞서 간접전달을 옹호한다. 이런 까닭에 키에르케고어는 ‘제2군의 가명 사용(the second-round pseudonymity)’으로 분류되는 안티-클리마쿠스의 두 책, 『죽음에 이르는 병』과 『그리스도교의 훈련』이 바로 그의 저술의 ‘정지(halt)’를 표현한다고 보았다.⁸⁾ 본 연구는 결정적 발언자로서 안티-클리마쿠스의 관점에서 간접전달을 규명한다. 그의 관점으로 ‘심리학적 실험’을 볼 때 간접전달로서 그 위상이 선명해지는 조명(照明)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

‘심리학적 실험’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¹⁰⁾, ‘간접전달’은 그 중요성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Bloomington/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7-1978), p. 648. 이후 각주는 ‘JP 권수 글 번호’로, 본문에서는 『일지』로 표기.

7) 최안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관점』, pp. 289-290, p. 330 참조.

8) JP VI 6461.

9) 키에르케고어는 『일지』에서 안티-클리마쿠스의 저술들이 자신이 꿈꿔온 이상으로 폭넓게 그리스도교를 조명한다고 썼다 (JP VI 6361). 『키에르케고어의 가명들』에서도 안티-클리마쿠스와 관련하여 ‘조명한다(illuminate)’는 표현이 수없이 반복된다. J. Stewart & Katalin Nun (ed.), *Kierkegaard's Pseudonyms*, KRSRR vol. 17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2015), pp. 39-48 참조. 이후 저자명을 생략하고 ‘KP, 쪽수’로 표기.

10)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전개됐으나, ‘심리학적 실험’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해외 선행연구로는 첸시 탕(Chenxi Tang)의 “Kierkegaard and the Culture of Psychological Experiment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KulturPoetik*, vol. 6, issue. 2 (2006), pp. 172-188가 있다. 탕은 과학적 실험과 대비되는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실험의 특성, 즉 실험의 미학화로서의 의미를 고찰한다. 국내 연구로는 유영소의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실험’」(서지사항: 각주 1 참조)이 있으며, 여기서는 심리학적 실험이 정립된 역사적 배경과 실험의 인간학적 의의를 논한다. 요르겐 핀트(Jörgen L. Pind)의 “The Psychologist as a Poet:

만큼이나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¹¹⁾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 표재명의 「키에르케고어의 간접전달」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키에르케고어가 1847년 『일지』에서 구상한 미완의 강의노트 「윤리적 및 윤리-종교적 전달의 변증법」에 근거하여 윤리적인 것의 전달로서 간접전달을 논구한다. 여기서 비교되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전달과 그리스도교의 윤리-종교적 전달이다. 반면 본 연구는 안티-클리마쿠스의 『훈련』에 제시된 간접전달론을 주요 논거로 삼는다. 『훈련』은 키에르케고어가 전체 저술활동의 전모를 밝힌 『관점』(1848)을 집필한 뒤인 1950년에 나왔다. 여기서 언급된 간접전달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전달자를 숨기는 키에르케고어의 이중-반영(double-reflection)¹²⁾이며, 심리학적 실험은 이중-

Kierkegaard and Psychology in 19th-Century Copenhagen”, in: *History of Psychology*, vol. 19, no. 4 (Nov. 2016), pp. 352-370 (DOI: 10.1037/hop0000039)는 시인-심리학자로서 키에르케고어를 형성한 19세기 덴마크 심리학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영어권 자료다.

- 11) 국내 선행연구로서 표재명의 「키에르케고어의 간접전달」, 『키에르케고어 연구』(지성의 샘 1995), pp. 233-257은 『후서』의 내용뿐 아니라 미완의 강의 초고 「윤리적 및 윤리-종교적 전달의 변증법」을 반영한 심도 깊은 연구서로서 간접전달에 관한 개요와 뛰어난 연구들도 소개하고 있다(pp. 234-235 참조). 이밖에 간접전달과 관련된 학술논문은 다음과 같다. 임태동,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 간접전달의 인식론적 의의 - 인식론의 딜레마와 교육적 해결」, 『교육철학』 19권 (1998), pp. 117-143; 이민호, 「실존과 진리: 키에르케고어의 『철학적 단편 후서』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5권, 25호 (2002), pp. 65-83 (UCI: G704-001231.2002..25.006); 임규정, 「키에르케고르: 해체인가, 아닌가?: 텍스트 이론과 간접전달」, 『철학연구』 89권 (2004), pp. 341-364 (UCI: G704-000640.2004.89..005); 임병덕, 「도덕교육의 방법으로서의 간접전달」, 『도덕교육연구』 5권, 1호 (1993), pp. 71-97; 하선규, 「키에르케고어 철학에 있어서 심미적 실존과 예술의 의미에 관한 연구-『이것이냐/저것이냐』, 『불안의 개념』, 『반복』, 『철학의 조각들』을 중심으로」, 『미학』 76권 (2013), pp. 219-268 (UCI: G704-000246.2013..76.005); 황중환, 「키에르케고어에서 실존적 변형(metamorphosis)으로서 용서의 간접전달」, 『철학논총』 63권, 1호 (2011), pp. 451-471 (UCI: G704-000634.2011.63.1.020).
- 12) 이중-반영(double-reflection)은 키에르케고어의 『일지』와 『후서』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훈련』에서 볼 수 있다. 이중-반영은 전달자와 수신자의 관계에서, 또 실존의 변증법에서 일어나는 반영의 복수성을 표현한다. 간접전달의 핵심인 이중-반영의 궁극 목표는 개인이 신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있다. (J. Stewart, S. M.

반영의 가장 고양된 형태다. 간접전달 안에서 심리학적 실험의 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런 맥락 속에 설정된 목표로서 본 연구의 고유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본론 II장은 질적으로 대립된 모순을 제시하는 간접전달의 이중운동을 실존의 변증법적 운동과 연관하여 고찰한다. III장의 1절은 안티-클리마쿠스의 관점에서 간접전달의 모체인 그리스도교의 진리 개념과 직접전달의 불가능성을 살피고, 2절에서는 간접전달의 두 가지 방법과 목적을 다룬다. IV장은 『반복』과 『후서』를 주로 참조하면서 간접전달로서 심리학적 실험의 특징을 정리한다. 결론에서는 상상력에 대한 키에르케고어/안티-클리마쿠스의 관점에 비추어 심리학적 실험이 전체 저술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밝히는 것으로 논의를 맺는다.

Emmanuel & W. McDonald [ed.], *Kierkegaard's concepts: Tome II: Classicism to Enthusiasm*, KRSRR vol. 15 [Surrey: Ashgate Publishing 2014], pp. 195-198). 이중-반영의 'reflection'은 표재명의 「키에르케고어의 간접전달」에서 '반성'으로 해석된다. 또한 키에르케고어의 'Reduplication'을 '반성의 중복'으로 파악하고 '이중-반성'과 동일 개념으로 썼다(p. 247 참조. 'Reduplication'은 본고의 각주 38 참조). 『훈련』의 한글판은 '이중-굴절'로 번역했고, 일각에서는 '이중-반사'로도 해석한다 (엄태동,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 간접전달의 인식론적 의의-인식론의 딜레마와 교육적 해결」, p. 129 참조. 전체 서지사항은 각주 11). '굴절'이나 '반사'의 경우 물리적인 되침의 현상은 전달하지만 '거울에 비친 상'을 표현하기는 어렵다. 본고 3장 2절에 언급한 대로 키에르케고어는 자신의 저술들을 '거울'로 본다. 안티-클리마쿠스가 모순의 표징을 거울에 비유할 때도 거기에는 '반영'의 뜻이 있다. 전달자와 수신자의 관계에서 이중-반영은 모순의 표징과 마찬가지로 '거울' 구실을 한다. 이상을 근거로 본고에서는 'reflection'을 '반영'으로 번역했다.

II. 실존의 변증법적 운동과 저술의 이중운동

심리학적 실험 형식이 처음 나타나는 『반복』은 키에르케고어가 저술활동을 시작한 1843년에 발표됐으며, 같은 해에 처녀작 『이것이냐/저것이냐』를 포함한 세 편의 심미적 저술과 세 편의 종교적 강화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후 불과 1년 6개월가량의 시차를 두고 『단계들』이 발표됐다. '심리학적 실험'은 이 짧은 시기에 제한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실험'의 등장과 퇴장은 가명의 심미적¹³⁾ 저술들의 출판이 집중된 간접전달 시기와 겹친다. 『후서』가 나온 1846년을 기점으로, 이전의 심미적 저술들은 제1군으로 구분된다.¹⁴⁾ 그중 맨 끝에 발표된 『단계들』에서 '심리학적 실험'이 이론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1848년부터는 신문에 연재된 심미적 소론 「위기 및 한 여배우의 생애에 있어서의 하나의 위기」(1848)와 가명 저자 안티-클리마쿠스의 두 권의 종교적 저술을 제외하면 실명 저술이 주를 이루는 직접전달 시기로 접어든다. 키에르케고어는 『이것이냐/저것이냐』가 나오고 2, 3 개월 만에 실명의 『두 개의 건덕적 강화』가 출판된 것과 『후서』 이후 2년 간 종교적 저술만 나온 시점에서 심미적 소논문이 등장한 것을 의도적 대응 구조로 설명함으로써 저술 전체의 일관된 이중성을 주장한다.¹⁵⁾

간접전달을 규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것,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운동(movement)'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후서』에서 클리마쿠스는 지식의 전달처럼

13) 심미적(Æsthetik/Aesthetic)은 키에르케고어의 저술에서는 크게 ① 아름다움에 대한 예술적 이해 ② 실존적 영역과 관련되어 쓰이며, 여기서는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종교적 저술과 대조된다(KC I, p. 23). 상세한 용어의 의미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KC I, pp. 23-29; 하선규, 「키에르케고어 철학에 있어서 심미적 실존과 예술의 의미에 관한 연구-『이것이냐/저것이냐』, 『불안의 개념』, 『반복』, 『철학의 조각들』을 중심으로」, pp. 224-226.

14) 쇠얀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관점』, p. 289.

15) 쇠얀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관점』, p. 288.

“직접적 전달은 확실성(certainty)을 요구하지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in the process of becoming) 사람에게는 확실성이 불가능하다”¹⁶⁾고 말한다. 확실성은 ‘결론(result)’이나 ‘완결(completion)’과 대응한다. 결론이나 완결은 ‘이미 끝난 것’으로 거기에는 운동이 없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결론으로서 그의 사랑을 말로 직접 전달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실존-범주(existence-category), 운동(movement)은 간접전달만 가능하다.¹⁷⁾ 클리마쿠스는 풍요와 빈곤 사이에 태어난 플라톤의 에로스를 인용하여 실존을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영원한 것과 시간적인 것에 의해 태어난 아이”¹⁸⁾라고 정의한다. 모순 사이에 태어난 실존은 자기 안의 대립적 요소를 종합하고자 끊임없이 분투한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욕망하는 에로스와 마찬가지로 분투하는 실존의 변증법적 운동은 결핍에서 야기된다. 인간 실존이 결핍한 것은 무엇인가? 안티-클리마쿠스에 의하면 “인간은 아직 자기가 아니다(a human being is still not a self).”¹⁹⁾ 따라서 결핍된 것은 바로 ‘자기’다.

16) Søren Kierkegaard,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 to Philosophical Fragments*, vol. I,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 74, 주 25. 이후 CUP I로 표기.

17) CUP I, p. 73 주25 참조.

18) CUP I, p. 92

19) Søren Kierkegaard, *Sickness Unto Death: A Christian Psychological Exposition for Upbuilding and Awakening*,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p. 13, 『죽음에 이르는 병』, 임규정 옮김 (한길사 2007), p. 55. 이후 각주의 영문판은 SUD로 쓰고 우리말 번역본(쪽수)를 병기한다.



[표 1] 실존의 세 영역과 두 개의 경계 영역

키에르케고어는 자기 인식에 따라 실존 영역을 심미적, 윤리적, 종교적인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이 접하는 곳에 두 개의 경계영역인 아이러니와 유머를 설정한다. 가장 높은 실존 영역인 종교적 단계는 윤리-종교적인 종교성A와 그리스도교적인 역설적 종교성B로 갈라진다 [표 1].²⁰⁾ 클리마쿠스의 설명에 따르면, 다양한 실존-전달(existence-communication)은 실존함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각각의 등급이 결정된다.²¹⁾ 직접성(immediacy) 즉 심미적인 것은 실존함에서 아무런 모순도 찾지 못한다.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를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윤리적인 것은 모순을 발견하긴 하지만 자기-주장(self-assertion) 안에서다. 종교성A는 무아(無我, self-annihilation) 속에서 고통(suffering)으로서 모순을 깨닫지만, 내재성(immanence) 안에서다. 종교성B는 그리스도교의 종교성으로, 이 역설적 종교성은 내재성과 단절하고 실존함을 절대적 모순으로 만든다. 제3의 요소인 영원한 것 자체(the eternal itself, 하나님=사람인 그리스도)가 시간 안으로 들어옴(성육신(成肉身), the Incarnation of Christ)으로써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양자의 종합으로서 ‘자기’는 종교성B에 이르러 비로소 현실성이 된다.²²⁾

20) *CUP I*, pp. 501-502.

21) *CUP I*, pp. 572-573 참조.

심미적 영역에서 종교적 영역으로의 이행은 ‘자기’가 되기 위해 분투하는 실존의 변증법적 운동의 방향이다. 각 영역 간의 이행은 비약적이며 내면적이다. 특정한 계기를 통한 자기 인식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이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행은 새로운 실존을 생성²³⁾한다. 생성의 운동은 단번에 완결되지 않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면서 반복된다. 간접전달은 이와 같은 실존의 변증법적 운동과 관련된다. 간접전달을 구성하는 모든 개념들에 따라다니는 이중성 혹은 양의성은 실존의 모순 구조에서 연유한다. 간접전달의 목표는 독자로 하여금 모순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오로지 시간적인 것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심미적 실존에서 떠나 영원한 것과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도전하는 것이다.

“그(실존하는 주체)의 전달(communication)이 형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실존과 본질적으로 일치해야 하는 바로 그 만큼, 그의 사고는 실존 양식에 부합해야 한다.”²⁴⁾는 것은 키에르케고어의 저술활동의 원칙이었다. 종교적 작가로서 실명의 종교적 강화들을 발표한 것은 이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실존과는 구별되는 관점들을 재현하기 위해 심미적 실존에서 최고도의 종교적 실존에 이르는 가명들을 창조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저술활동이 실존의 모순 구조와 상응하는 이중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표 2].

22) *SUD*, p. 13, 『죽음에 이르는 병』, p. 55-56 참조.

23) Søren Kierkegaard, *Philosophical Fragments/Johannes Climacus*,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p. 74, 『철학의 부스러기』, 표재명 옮김 (프리칭아카데미 2007), p. 141 이하 참조.

24) *CUP I*, p. 80.

가명의 저작	실명의 건덕적 저작
『이것이냐/저것이냐』 (1843.2.20)	『두 개의 건덕적 강화』 (1843.5.16)
『반복』 (1843.10.16)	『세 개의 건덕적 강화』 (1843.10.16)
『두려움과 떨림』 (1843.10.16)	『네 개의 건덕적 강화』 (1843.12.6)
『철학의 부스러기』 (1844.6.13)	『두 개의 건덕적 강화』 (1844.3.5)
『불안의 개념』 (1844.6.17)	『세 개의 건덕적 강화』 (1844.6.8)
『머리말』 (1844.6.17)	『네 개의 건덕적 강화』 (1844.8.31)
『인생길의 여러 단계』 (1845.4.30)	『결정적인 기회에 즈음한 세 개의 건덕적 강화』 (1845.4.29)
『이것이냐/저것이냐』 제2판(1849.5.14)	『들의 백합, 공중의 새』 (1849.5.14)
『그리스도교의 훈련』 (1850.9.27)	『하나의 건덕적 강화』 (1850.12.20)

[표 2] <키에르케고어 저작활동의 이중성>²⁵⁾

심미적으로 규정된 단독자들로서 가명의 저자들은 지성, 교양 그 밖의 것에 관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반면 윤리적으로 규정된 단독자로서 키에르케고어가 공식적으로 이름을 내걸고 발표한 종교적인 강화들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 곧 보편적-인간적인 것에서 시작한다.²⁶⁾ 질적으로 상반된 양자의 이중성은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주의를 변증법적으로 자극한다. 키에르케고어는 이 이중의 것을 ‘단독자의 변증법’이라고 불렀다.²⁷⁾

25) 쇠얀 키에르케고어, 『신앙의 기대』, 표재명 옮김 (프리칭아카데미 2009), p. 195 역자 해제. 원래 표의 저서명 일부를 현재 출판된 한글 번역본의 제목으로 바꾼 것 외에는 그대로 인용했다. 또한 역자가 ‘2중성’으로 쓴 것을 ‘이중성’으로 썼다. ‘이중성’이 부정적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다른 한글 번역본과의 용어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이중성’으로 바꿨음을 밝혀 둔다.

26) 윤리적이란 “그가 말한 것과 개인적 실존의 관계, 곧 그의 개인적인 실존이 그가 말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쇠얀 키르케고르, 『단독자-나의 저작활동에 관한 두 개의 메모』,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표재명 옮김 (프리칭아카데미 2010), pp. 132-174, p. 164. 이후 「단독자」로 표기.

III. 간접전달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 고찰 : 안티-클리마쿠스의 관점에서

1. 그리스도교 진리의 직접전달 불가능성

『반복』과 『단계들』을 포함하는 제1군의 저술들과 가명의 종교적 저술인 『훈련』 사이에는 심미적 저술도 종교적 저술도 아닌 『후서』가 위치한다. 키에르케고어는 1845년 말 『후서』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가명의 심미적 저술들의 저자임을 밝힌 뒤 집필활동을 멈췄다. 얼마간 침묵 후에 안티-클리마쿠스라는 가명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1849)과 『훈련』(1850)을 발표한다. 『훈련』의 출판은 거의 일년 반이나 지연됐는데, 내용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종교성B)이 아니라면 쓸 수 없는 것이기에 그 반향을 염려한 것으로 추측된다(『훈련』, 411-413). ‘안티-클리마쿠스’는 클리마쿠스의 반대가 아닌 그 보다 우월하거나 상위에 있음을 뜻한다.²⁸⁾ 종교적인 것과 인접한 경계 영역의 유머가(humorist) 클리마쿠스는 “더 낮은 위치에 있으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인한다.²⁹⁾ 반면 안티-클리마쿠스는 스스로를 비범하게 높은 위치에 선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며, 키에르케고어 자신 보다 높다. 『일지』에 따르면, 키에르케고어는 안티-클리마쿠스의 종교적 저술들을 끝으로 집필활동을 끝낼 생각이었다. 그는 이 최후의 가명 저자가 자기 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편집자로서 제시하는 일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실명의 종교적 강화들은 자신의 것이지만 그 뒤에 놓인 더 낮은 영역의 심미적인 것이나, 보다 앞선 더 높은 단계의 교화를 위한 가명의 저술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³⁰⁾

안티-클리마쿠스의 저술은 두 가지 주요 범주에 착수한다. 하나는 교화적인

27) 최안 키르케고르, 「단독자-나의 저작활동에 관한 두 개의 메모」, pp. 155-156 참조.

28) *JP VII* notes 1806, p. 598.

29) *JP VII* 6439.

30) *JP VII* 6433, 6461.

(upbuilding) 문제(『죽음에 이르는 병』)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교의 참된 의미를 밝히기 위한 투쟁(『훈련』)이다.³¹⁾ 『훈련』은 키에르케고어가 처한 역사적 환경, 즉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교계와 맞서서 그리스도인 됨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간접전달은 바로 이런 역사적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안티-클리마쿠스가 역설하는 그리스도교의 직접적 전달의 불가능성은 키에르케고어가 간접전달을 택한 근본 동기를 밝혀 준다. 클리마쿠스는 “그리스도교는 교리가 아니라 실존-전달”³²⁾이라고 말한다. 클리마쿠스의 말은 간명하지만 추상적이다. 반면 안티-클리마쿠스는 그리스도교가 전달하는 것은 교리만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여기에는 아무런 모호함이 없다. 그러나 실천에서는 그렇지 않다. 교리 전달은 직접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다.³³⁾ 하지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문제에 답을 얻으려면, 우선 안티-클리마쿠스가 제시하는 그리스도교의 ‘진리’ 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의미에서의 진리는 여러 명제의 총화나 개념규정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들이 아니고 현실의 삶이라는 말이다. [...]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 속에 진리를, 즉 **현실의 삶**으로서 진리를 지니고 계셨던 것이다(『훈련』 205/318).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진리 개념은 전달 내용과 전달자의 동일성을 함축한다. 그리스도교적 의미에서는 삶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 진리로서 사는 것이 곧 진리를 아는 것이다(『훈련』 205/319). 그러나 세속화된 그리스도교 세계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취하고 그리스도를 버렸다. 안티-클리마쿠스는 “그리스도는 그의 가르침보다도 무한히 중요”(『훈련』 124/189)하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가 진리라

31) *KP*, p. 41 참조.

32) *CUP I*, p. 570.

33) 그리스도교의 전달은 간접전달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계시 내용의 직접전달을 수반한다. 표재명, 『키에르케고어의 간접전달』, pp. 243-244 참조.

면 전달자로부터 그 가르침을 분리할 수 없다. 전달방법에 있어서도, 한 사람의 인격적인 존재는 강의나 설교 같은 말로 혹은 책으로 전달하지 못한다. 더욱이 그 스승(전달자)이 극단적인 질적 모순을 지닌 하나님=사람이라는 점에서, 또한 하나님이 외적으로 식별 불가능한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직접 전달은 불가능하게 된다.

(1) 모순의 표징(a sign of contradiction)으로서 하나님=사람

안티-클리마쿠스는 그리스도교의 직접전달 불가능성을 해명하기 위해 하나님=사람은 하나의 ‘표징’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어떤 것이 표징이라면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형태 뒤에 다른 뜻을 지닌다. 따라서 표징은 부정을 거친 직접성이다. 내지는 첫째 존재와는 다른 둘째 존재다(『훈련』 124/190). 이를테면 향로를 표시하는 부표(浮標)가 표징인데, 그것은 부표가 표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표징으로서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것을 표징으로 간주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 속에서 끄집어 낸 내성(內省)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훈련』 124/190). 안티-클리마쿠스는 표징이 직접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사람이 그와 같다고 말한다. 하나님=사람은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그대로의 사람임과 동시에 그와는 정반대의 존재인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표징이며, 특별히 모순을 구성 요소로 지닌 ‘모순의 표징’이다(『훈련』 125/191). 모순의 표징이란 그 자체로 주의를 끌고, 일단 주목하게 되면 모순을 지닌 것으로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훈련』 125/192).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의 인간 존재 사이에는 극도의 질적 모순이 엄존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변적 종합이 아닌 실존하는 모순이라는 사실이다. 눈앞에 보이는 보잘 것 없는 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모순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형태로는 종합되지 않는다. 모순의 표징이 지닌 역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수신자 편의 주체적 결단을 요구함으로써 전달을 변증법적인 것으로 만들며, 직접적인 전달을 원천봉쇄한다. 안티-클리마쿠스는 당대 그리스도교계가 그리스도교

를 직접적인 전달로 만드는데 성공한 까닭은 “‘하나님-사람’인 전달자를 제거해 버린 결과(『훈련』 127/195)”라고 비판한다.

(2) 미행(微行, incognito)

‘알려지지 않은(unknown)’을 뜻하는 라틴어 ‘incognitus’에서 유래한 ‘incognito’는 남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장을 하거나 가명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명을 사용한 키에르케고어의 간접전달이 바로 ‘미행’에 해당한다.³⁴⁾ 클리마쿠스의 경우 미행을 하나의 실존 범주로 간주하고, 실존하는 개인의 내면성(inwardness)을 감추고 보호하기 위한 변장술을 창출하는 희극적 모순(comic contradiction)으로 규정한다. 반면 안티-클리마쿠스는 ‘미행’을 전달의 한 범주로 다룬다. 그는 미행을 청자 혹은 독자의 내면성을 활성화하고 드러내기 위해 위장하는 ‘모순의 표징’으로 규정한다.³⁵⁾ 그에 따르면 간접전달은 “전달자 자신이 변증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자신의 존재가 내성을 거친 규정”일 때야 성립된다(『훈련』 134/207). 하나님=사람은 외적으로 사람, 그것도 종의 모습을 한 비천한 인간으로 나타남으로써 최대의 질적인 모순을 함축한다. 하나님이 특정한 하나의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즉 무한한 질적인 거리를 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오한 미행이다.(『훈련』 127-128/196)” 안티-클리마쿠스는 이 같은 미행의 질적 모순성을 강조하면서, “식별이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엄중한 장벽(『훈련』 131/202)”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 외면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한 까닭에 ‘나는 하나님이다’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더라도, 전달자에 의해 모순이 부여되어 간접전달이 된다. 직접적인 전달의 성격을 보존하려면 전달자가 미행에서 빠져나와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1의 단계에서 직접적인 전달이, 제2의 단계인 전달자의 미행의 매개를 거쳐서 간접전달이 된다(『훈련』 132-133/204-205).

34) 쇠얀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관점』, p. 337.

35) J. Stewart, S. M. Emmanuel & W. McDonald (ed.), *Kierkegaard's concepts: Tome III: Envy to Incognito*, KRSRR vol. 15 (Surrey: Ashgate Publishing 2014), p. 231.

2. 간접전달의 두 가지 방법

(1) 간접전달의 첫 번째 방법: 전달의 이중-반영

안티-클리마쿠스는 간접전달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 간접적인 전달은 전달을 이중화하는(in redoubling the communication)³⁶⁾ 기술이 될 수가 있다(『훈련』 133/205). 이 방법에서는 전달자가 자신을 감추고 모순을 전달한다. 안티-클리마쿠스는 이것이 몇몇의 가명 저자들이 전달의 ‘이중-반영’이라고 부른 사태라고 말한다(『훈련』 133/205). 이중-반영은 “전달자인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객관화하여 무(無)로 화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질적으로 대립하는 양자를 끊임없이 종합하려는 과정에서 극치에 달한다.”(『훈련』 133/205) 전달자를 없는 것, 인간이 아닌 것, 객관적인 매체로 만드는 이 방식은 특별히 키에르케고어에게 적용된다. 심미적 저술과 종교적 저술의 변증법적 이중성은 『훈련』 외의 여러 저술들에서 “장난(jest)과 진지함(earnestness)의 변증법적 매듭을 이루듯 결합되어 있는 것”(『훈련』 133/205)으로 표현된다. 장난과 종교적인 것의 이중성은 독자들의 상반된 반응을 야기한다. 숨은 저자는 마치 탐정처럼, 신앙 소유자는 신앙의 변호를, 자유사상의 소유자는 신앙에 대한 공격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교묘하게 결합된 신앙 저술을 전달하고, 각자의 반응에 따라 드러나는 진상을 파악한다(『훈련』 133-134/206). 그들의 판정을 보고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키에르케고어는 가명의 저자들만 보고 자신에게 거만하다거나 거드름을 피운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 저서들은 거울”이라고 응수한다.³⁷⁾ 이중-반영의 거울 효과는 하나님=사람의 모순의 표징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다.

36) 본고의 각주 46 ‘redoubling’ 참조.

37) 쇠얀 키르케고르, 「단독자-나의 저작활동에 관한 두 개의 메모」, p. 156 참조. 『관점』에서 키에르케고어는 「유혹자의 일기」를 그의 저술의 중심으로 간주한 폴 뮐러에게 이렇게 응수한다. “이 저서들은 거울이다. 그러나 원숭이가 그것들을 들여다본다면, 거기에 사도(師徒)가 보일 리가 없다.” 쇠얀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관점』, p. 404 참조.

그분(하나님=사람)께서 드러내시려는 것은, 바로 그대들의 숨은 마음이다. 그리고 자기에게로 주의를 끌어 놓고, 그리고 나서 모순을 들이대는 일은, 모순의 표징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 사람들이 그것을 보자마자 그것은 이를테면 거울로 변하여 보는 사람의 자기 자신을 보여 주게 된다. [...] 어떤 인간이 직면하는 모순은 [...] 일종의 거울이다. 이 거울을 향하여,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자신 속에 깃들이고 있는 생각이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거울에 반영되는 모습은 수수께끼다. 그러나 이것을 풀려고 하면, 그것을 푸는 방법에 따라, 자기 속에 깃들고 있는 숨은 생각이 드러나게 된다. 모순은 그 사람을 선택 앞에 세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다(『훈련』 126-127/194).

모순의 표징과 마찬가지로 심미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대립하는 이중-반영의 모순은 마주하는 주체를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 이처럼 객관적인 '무엇'을 전달하지 않고, 수신자를 선택 앞에 세움으로써 주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간접전달의 근본 목적이다. 안티-클리마쿠스가 제시하는 간접전달의 두 번째 방법도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 간접전달의 두 번째 방법: 전달자의 미행과 ‘Reduplication’³⁸⁾

둘째로 간접적인 전달은 전달과 전달자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도 이뤄진다. 첫 번째와 달리 두 번째 방법에서는 전달자가 관여한다. 여기서 모순의 이중성은 전달자 자신에게 있다. 모순적-변증법적으로 규정된 전달자는 안티-클리마쿠스가 전달의 한 범주로 제시한 ‘미행’의 형태를 띤다. 모순의 표징인 그리스도의 미행이 최고의 모범이며, 무지를 가장한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 키에르케고어의 가명 사용도 미행에 속한다.³⁹⁾ 동시에 전달자는 수신자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전달자이면서 그 자신이 진리인, ‘진리의 존재(the being of the truth)’다. 따라서 전달자와 전달내용이 동일하다. 안티-클리마쿠스는 스승(전달자)이 가르침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을 ‘reduplication’이라고 부른다. 그에 따르면, 전달에서 스승이 본질적으로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의 reduplication 현상이 일어난다. 스승이 그 가르침 속에 현존함으로써, 전달은 스

38) 「단독자」의 역자는 덴마크어 ‘Reduplikation’을 ‘반복’으로 번역했다. 역주에 의하면 ‘Reduplikation’은 키에르케고어의 또 다른 개념인 ‘반복’(Gjentagelse, Repetition)과 달리, 음절을 중복하여 파생형을 만드는 것으로, 말과 행동이 겹쳐지는 관계를 가리킨다 (p. 188). 『일지』에 나타난 ‘Reduplikation(reduplication)’의 의미는 명확하다. “‘현실성’은 말해진 것의 실존적 reduplication에 있다. [...] 현실성 안에서 가난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자신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JP I 653:17). 『훈련』의 역자는 ‘Reduplikation’과 상관개념인 ‘redoubling’을 모두 ‘중복’으로 옮겼다. 본고에서는 두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영어 번역어 ‘reduplication’을 그대로 사용한다. ‘reduplication/redoubling’의 번역 및 개념의 차이에 관해서는 각주 46과 J. Stewart, S. M. Emmanuel & W. McDonald (eds.), *Kierkegaard's concepts: Tome V: Objectivity to Sacrifice*, KRSRR vol. 15 (Surrey: Ashgate Publishing 2015), pp. 206-211을 참조할 것.

39) 「키에르케고어의 간접전달」에서는 소크라테스적 전달을 윤리적 전달로, 그리스도교적 전달을 윤리-종교적 전달로 구분하고, 키에르케고어의 전달을 직접전달(그리스도교적 강화)과 간접전달(이로니적[Ironie]-후모르적[Humor] 변증법적으로 규정된 가명의 전달자의 심미적 저술)을 종합한 ‘간접-직접성의 종합’으로 설명한다. 표제명, 「키에르케고어의 간접전달」, pp. 237, p. 240 이하 참조.

승 안에 reduplication 되고, 그 결과로서, 갖가지 방식으로 자기 모습을 바꾸는 천 변만화술(千變萬化術)이 된다(『훈련』 123/189). 안티-클리마쿠스는 두 번째 전달 방식에서의 “전달자는 전달의 reduplication”(『훈련』 134/207)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원형이 그리스도임을 시사한다.

(3) 간접전달의 목표: ‘주체적인 자기가 됨’

간접전달, 특히 전달자가 곧 전달내용인 두 번째 방법은 수신자에게 외적으로는 전달하는 것이 없다. 간접전달이 겨냥하는 것은 수신자의 실존적 변형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된다. 하나는 모든 시대, 모든 개인과 절대자로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동시성(Samtid, contemporaneity)이고, 다른 하나는 모순에 의해 믿느냐 않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자유 앞에 서게 되는 수신자의 진지함(Alvor, earnestness)이다(『훈련』 135-136/209-210). 안티-클리마쿠스는 “절대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때 즉 현재가 있을 뿐”(『훈련』 63/102)이라고 말한다. 동시성은 종교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간 오성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수신자는 신앙의 목격(Autopsi, autopsy)으로만 그리스도와 동시대인이 된다.⁴⁰⁾ 또한 개인이 윤리적 차원에서 절대적인 것으로서 자기를 선택하거나, 종교적 차원에서 믿음으로 절대적 역설을 선택하는 자유 앞에 설 때, 그 때의 주체의 내면성이 곧 진지함이다.

믿음에 의해 동시적으로, 자유에 의해 역설을 선택함으로써 수신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들어간다. 이 관계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the eternal)이 인간 속에 깃든다.⁴¹⁾ 역설의 수신자가 자기 안에 영원한 것을 지닌 ‘영적 인간(spiritual person)’⁴²⁾이 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은 불완전한 존재에 깃든 완전함이다. 또한

40) Søren Kierkegaard, *Philosophical Fragments/Johannes Climacus*, p. 137. ‘autopsy’의 어원은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다”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autopsiá’에서 온 라틴어 ‘autopsia’이다.

41) 최안 키에르케고르, 『사랑의 역사(役事)』, 임춘갑 옮김 (다산글방 2005), p. 479 참조.

시간적인 것만을 지닌, 따라서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존재(vanishing being)인 자연인과 영적 인간을 구별하는 ‘차이(a difference)’다.⁴³⁾ 외적으로 식별 불가능한 이 내면적 차이는 수신자를 역설 곧 질적으로 대립되는 모순을 지닌 이중의 존재로 만든다. 이러한 실존의 변형은 안티-클리마쿠스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필연성과 가능성의 종합이라고 말한 그 ‘현실성’⁴⁴⁾이며, 클리마쿠스가 자유에 의해 일어나는 가능성으로부터 현실성으로의 이행이라고 부른 생성의 변화(the change of coming into existence)다.⁴⁵⁾ 안티-클리마쿠스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끈다’는 사상을 토대로 전달의 이중적 함축을 논하는 한편, 수신자의 ‘redoubling[Fordobles e]⁴⁶⁾’의 존재론적 측면을 드러냄으로써 그 개념을 재정의한다.⁴⁷⁾

42) Søren Kierkegaard, *The Moment and Late Writings*,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 183 참조.

43) Søren Kierkegaard, *Christian Discourses: The Crisis and a Crisis in the Life of an Actress*,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p. 208 참조.

44) *SUD*, pp. 38-39, 『죽음에 이르는 병』, p. 60.

45) *PF*, p. 74, 『철학의 부스러기』, p. 142, p. 144.

46) ‘Fordobles’와 ‘Reduplikation’은 언어학 용어로, 키에르케고어의 저술에서 실존적 의미로 재정의하여 사용된 상관개념들이다. 영문판은 전자를 ‘redoubling’으로, 후자를 ‘reduplication’으로 옮겼다. 키에르케고어 개념 사전에 따르면, ‘redoubling’은 안티-클리마쿠스의 간접전달의 첫째 방법과 연결되는데, 전달의 ‘redoubling’은 “반대되는 것들의 통일 속에서 드러난다.” ‘reduplication’은 두 번째 전달방법과 관련되며, “가르치는 자가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실존함으로써 통일을 이루는 것, [...] 바로 이 안에 있다” (J. Stewart, S. M. Emmanuel & W. McDonald (eds.), *Kierkegaard's concepts: Tome V: Objectivity to Sacrifice*, p. 209). 클리마쿠스는 “그 자신의 생성 내부에 있는 생성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생성의 이중성(redoubling)을 말한다(*PF*, p. 76, 『철학의 부스러기』, p. 146). ‘redoubling’은 두 요소를 동시에 지나는(two things at the same time) 역설과 생성과정을 아우르는 복합적 개념이므로 우리말 번역이 어렵다. 『훈련』의 한글판은 ‘redoubling’을 ‘reduplication’과 같이 ‘중복’으로 옮겼다. 하지만 ‘reduplication’은 전달자와 관련해서 쓰인 반면, ‘redoubling’은 실존의 변형과 연관되어 쓰이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하다. 언어학에서는 ‘redoubling’과 ‘reduplication’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키에르케고어가 언어학 개념들을 어떤 의미로 적용했는지

그렇다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는(to be a self)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a redoubling(to be a redoubling)을 의미한다. 이와 대응하여, 진실로 자기에게로 이끈다는 것도 따라서 이중성(Dobbelthed, duplexity)을 띤다. [...] 주체적인 자기는 a redoubling이고, 그것은 자유다. 따라서 진실로 자기에게로 이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들이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 하나의 주체적인 자기가 다른 주체적인 자기를 진실로 자기에게로 이끄는 일은 선택을 통해서 밖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진실로 자기에게로 이끄는 일은, 하나의 복합적인 사태다. [...] 그리스도는 하나의 복합적인 존재이고, 그러면서도 동일불변한 분이시다. 낮아져서 겸손한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높이 들려 올려진 분이시다. [...] 그분은 그 양쪽을 겸비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중성(duplexity)을 통하여 자기에게로 이끄는 일은, 다른 무엇도 즉 어떤 자연의 힘도 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정신(영, spirit) 뿐이고, 그리고 또 정신(영, spirit)만을 그렇게 자기에게로 이끄실 수가 있다(『훈련』 159-243-245).

안티-클리마쿠스는 전작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긍정적인 제3의 것”⁴⁸⁾이라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자기의 종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인용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해 준다. 전달의 관점에서 종합은 첫째, 이끌려오는 수신자를 자기 자신으로 만드는 일과 둘째, 자유에 의해 역설을 선택한 수신자를 전달자 자신에게로 이끄는 이중의 방식으로 실현된다. 앞서 밝힌 대로 ‘동시성’과 수신자의 ‘진지함’은 종합의 첫 번째 단계에 필수적이다. 전달자가 없는 전달의 이중-반영과 달리, 수신자와 가르침이 하나인 두 번째 전달방식의 경우 양자택일이 불가능하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두 용어는 키에르케고어 연구자들에게 여전히 논란거리다 (Carolyn J. Mackie, *“Two Things at the Same Time”: Fordobelse in Kierkegaard’s Writings* [MA_Thesis]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2014] [<http://hdl.handle.net/10756/336523>] 참조). 용어들을 구별하고 개념적 오해를 피하고자 본고에서는 두 용어의 영어 번역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47) *KC V*, p. 209.

48) *SUD*, p. 13, 『죽음에 이르는 병』, p. 56.

다. 수신자는 영원한 것과 시간적인 것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하나님=사람의 역설을 전제로서 택해야 한다. 이로써만 수신자가 ‘정신’으로 정립되고, 절대적 타자인 정신(그리스도)이 그(수신자의) ‘정신’을 자기에게로 이끈다. 이 관계는 나날의 결단과 이끌림을 통해 수신자를 진리의 존재로 변형케 한다.

진리의 존재는 사유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존재의 직접적인 redoubling 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사유된 존재(thought-being)를 만들어낸 뿐 [...] 진리의 존재란, 그대의, 나의, 또 다른 누군가의 실존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redoubling이다.⁴⁹⁾ 즉 그대의, 나의 또 다른 누군가의 현실의 삶이 진리를 추구하여, 몸으로써 진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훈련』 205/318).

안티-클리마쿠스는 ‘그대’, ‘나’, ‘또 다른 누군가’로 낱낱의 개인을 지칭함으로써 단독자를 부각한다. 키에르케고어의 심미적 저술들이 단 한 사람의 독자를 향해 말하고, 심리학적 실험에서 일기나 편지의 1인칭 서술이 사용되는 까닭은 전달자와 수신자 양자의 단독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단독자로서, 인간 전달자와 수신자는 앞에 놓여 있는 모범(Paradigma, paradigm),⁵⁰⁾ 곧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감으로써 자신의 실존 안에서 redoubling을 지속적으로 실현한다. 키에르케고어의 간접전달은 수신자의 ‘주체적인 자기됨’을 촉발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자 한다. 전달의 소임은 모순을 제시함으로써 선택을 야기하는 데까지며, 성패 여부는 주체의 결단에 달린 것이다. 이것이 “주체성이 진리”라는 클리마쿠스의 주제가 의미하는 바다.⁵¹⁾ 가명의 저자 전체와 그들의 저술들은 이 하나의 목표로 정향되어 있다. 그 중에서 ‘심리학적 실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목표에 기여하는지, 마지막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9) 우리말 번역에는 “진리의 redoubling”에서 ‘진리의’가 생략됐다. “[...] the being of truth is **the redoubling of truth** within yourself, within me, within him, [...]”

50) 파라디그마(paradigma)는 고대 그리스어 ‘parádeigma’에서 빌려온 후기 라틴어로서, 형태나 무늬(pattern), 본보기(example), 패러다임(paradigm)을 뜻한다.

51) *CUP I*, p. 281.

IV. 심리학적 실험의 위상

심리학적 실험은 상상적으로 구성된 허구다. 간혹 ‘소설(novel)’⁵²⁾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어느 장르에도 속하지 않는다. ‘실험하는 심리학’이라는 부제가 달린 『반복』의 가명 저자, 콘스탄틴 콘스탄티우스는 자신의 책을 가리켜 “희극도 비극도 아니고, 또 장편소설이나 서사시도, 단시(短詩)나 단편소설도 아니”라고 말한다. “1·2·3의 순서로 앞뒤가 맞게 설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그의 말대로 논리적 연결이나 서사적인 통일성도 찾기 어렵다.⁵³⁾ 그렇다면 그 정체가 무엇일까? 심리학적 실험이 처음으로 시도된 『반복』의 가치는 통념적 비평의 잣대로는 가늠하기 어렵다. 『반복』 뿐 아니라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실험을 이해하려면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1835년 10월 키에르케고어는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의 『루친데에 관한 사신(私信) Vertraute Briefe über Schlegel's Lucinde』을 읽고, 『일지』에 아래의 소감을 기록했다.

그는 책 자체에서 다수의 개성들(personalities)을 구성하고, 그들을 통해 작품을 조명하면서 그들의 단독성(individuality)까지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평론가와 마주치는 대신,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재현하는 여러 인물들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존재들이어서, 단독자(the single individual)의 단독성을 일별하고, 그저 상대적일 뿐인 무수한 참된 판단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최종 판단을 마련할 수가 있다.⁵⁴⁾

키에르케고어가 주목한 것은 개개의 인물들을 통한 다양한 관점의 재현과 어떤 관점을 택할지의 선택권이 독자에게 주어지는 열린 형식이다. 그에게 있어

52) *Re*, p. 357 참조.

53) *Re*, p. 226, 최안 키에르케고어, 『공포와 전율/반복』, 임춘갑 옮김 (다산클망 2007), p. 391.

54) *JP I* 3846.

서 독자를 주체적으로 만드는 올바른 전달방식은 내용만큼이나 중요했다. 저술활동의 시작과 동시에 시도된 심리학적 실험은 다양한 인생관의 재현을 위해 특화된 전달형태다. 서두에 밝힌 대로 가명 저자가 인물, 상황, 사건을 창조하는 상상적 구성은 원저자-가명의 창작자-창조된 인물의 중층구조가 기본이다. 또한 서술형식의 측면에서, 하나의 실존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행하는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담은 일기나 편지의 1인칭 서술과 관찰자인 저자의 개인 기록 및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양립된다. 1인칭 서술은 인물의 단독성을 보장하며, 저자는 ‘관찰자’의 위치에 머문다. 『반복』과 『단계들』에서 관찰자들은 자신 보다 실존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이행하는 인물들을 주시한다. 하지만 그 이행의 귀결은 명확히 서술되지 않으며, 어느 편이 옳다는 주장도 없다. 결론 없는 열린 구성은 독자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유도한다.

『인생길』을 끝으로 제1군의 심미적 저술의 집필이 일단락된 그 이듬해, 키에르케고어는 『후서』에서 클리마쿠스의 입을 빌어 「동시대 덴마크 문학의 성과에 대한 일별」이라는 제목으로 심미적 저술들에 대한 논평을 제공했다. 『반복』에 관한 평에서, 클리마쿠스는 부제인 ‘상상의 심리학적 구성(an imaginary psychological construction[psychologisk Experiment])’을 지목하여 “내게는 이것이 이중적으로 반영된 전달(a doubly reflected communication)이었음이 곧 분명해졌다”⁵⁵⁾고 말한다. 그리고 간접전달로서 상상의 구성(심리학적 실험)이 지니는 특징들을 몇 가지로 기술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⁵⁶⁾

- 첫째, 상상적 구성의 형식으로 이뤄짐으로써, 전달은 스스로 대립을 창조한다.
- 둘째, 상상의 구성은 독자와 작가 사이에 커다란 간극을 설정한다.
- 셋째, 또한 독자와 저자의 내면성의 구별을 확고하게 만든다. 따라서 직접적인 이해가 불가능해진다.
- 넷째, 상상의 구성은 독자를 괴롭히는, 의식적인 전달의 철회다. 결론 없이

55) *CUP I*, p. 626.

56) *CUP I*, pp. 263-264.

모순을 전달하는 방식은(필자 설명) 실존하는 개인들을 위해 글을 쓰는 실존하는 개인에게 중요하다.

다섯째, 모순에 대한 반응은 둘로 갈린다. 저자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몫은 독자에게 있다.

여섯째, 수신자가 상상의 구성을 진지함으로 해석한다면, 그는 홀로 본질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진지함이다.

결론적으로, 사이 존재(Mellemværende, the being-in-between)로서 상상의 구성은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에 있으면서 독립된 내면성을 지닌 둘의 내면성을 고취한다.

클리마쿠스는 상상의 구성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런 형식으로 가명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실존함(existing)을 겨냥했고, 이 같은 방식으로 사변적인 사상들에 대항하여 간접적인 비판을 견지해왔음을 밝힌다.⁵⁷⁾ 실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체계를 강조하는 사변철학이 사람들에게 끼칠 불행한 결과에 대한 키에르케고어의 우려는 『일지』의 기록에도 나타난다. 그는 실존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착각에 빠뜨릴 뿐임을 간과했다.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직접전달 될 때, 독자들은 실존하는 것에 대해 뭔가를 더 많이 알게 됐다고 오해하겠지만, 단지 지식에 불과하므로 그 자신은 구태의연한 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런 고민 속에서 그는 독자를 주체적으로 만드는 전달형식으로서 상상의 구성이 지니는 의미를 깨닫는다.⁵⁸⁾ 안티-클리마쿠스의 간접전달론에서 본 것처럼 '주체적 자기됨'은 전달의 궁극 목표다. 이것은 전달자의 reduplication을 전제한다. 전달자에게 사유와 삶의 일치를 요구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다. 이것은 저자 개인의 예술적 성취를 우위에 둘 때 간과되기 쉽다. reduplication은 그리스도교적 의미에서 전달자의 redoubling을 증명하는 표지이므로 키에르케고어에게는 무시될 수 없었다. 사변철학의 체계에 대한 그의 공격은 그것이 그리스도교를 지식으로 만듦으로서 진리가 빠진 진리의 환영

57) *CUP I*, pp. 263-264.

58) *JP I* 633 참조.

을 유포한다는 점에 집중된다. 그는 『일지』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책에서의 변증법은 단지 변증법일 뿐이지만, 그와 같은 사유의 reduplication은 삶 속에서의 행위다. 그러나 자신의 사유의 변증법을 reduplication하지 않는 모든 사상가는 계속해서 환영을 구성한다. 그의 사유는 결코 행위라는 결정적 표현을 얻지 못한다. 오직 윤리적 사상가만이 행함으로써 전달에서의 환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⁵⁹⁾

전달자의 reduplication이 없는 직접전달이 양산하는 것은 사고-존재 (thought-being)일뿐이다. 이것은 간접전달이 목표하는 참된 redoubling과 상반된다. 간접전달은 내면과 외면 사이의 동질화를 통한 사변적 체계와 기존질서의 신격화(『훈련』 131-137)에 대한 항거다. 사유를 존재로, 교회체제를 신앙 자체로 동질화하는 것은 양자의 엄연한 괴리를 은폐하는 위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리학적 실험 그 자체로는 하나의 사고-실험이다. 이것이 어떻게 직접전달의 환영성에 맞서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 결론에서 상상력에 대한 키에르케고어/안티-클리마쿠스의 관점에 비추어 전체 저술에서 심리학적 실험의 구실과 위상 문제를 상술하는 것으로 논의를 매듭지으려 한다.

V. 나가는 말

키에르케고어는 인간의 가능성이란 그 속에 영원한 것이 전혀 없다면 현실성이 될 수 없는 허망한 것으로 보았다.⁶⁰⁾ 상상력은 시간이나 공간에 의하여 규정되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과 관련도 없는 오로지 사유로서의 현실성만을 지니는 가능성을 재현한다(『훈련』 187/2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력 [...] 은 인간

59) *JP III* 3665.

60) 최안 키에르케고르, 『사랑의 역사(役事)』, p. 428, p. 434, p. 443 참조.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첫걸음을 결정하는 힘이다(『훈련』 186/289).” 그 뒤를 이어 받는 것은 의지이며, 의지는 선택 앞에 섰을 때 “궁극적인 의미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힘이다(『훈련』 186/289).” 안티-클리마쿠스는 인생의 학교 비유를 통해 한 청년이 자기 자신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묘사한다(『훈련』 186-196/289-305). 이 비유는 가명의 저자들이 시작하고 중도에 멈춘, 실존의 세 단계의 종착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더 나아가 실존적 변형의 과정에서 상상력이 어떤 구실을 하는지도 보여준다. 비유에서의 상상력은 초기 단계의 외적인 변모와 높은 단계에서의 내면적 변모 모두에 관여한다. 그러나 단계에 따라 그 위상이 바뀐다.

심미적 실존에 해당하는 초기 단계에는 **상상력이 재현하는 완전성의 상(像)**이 인간을 이끈다. 그 결과 “[...]이상상과 닮은 자로 변모(*be transformed in likeness to this image*)”되고, “이 이상상은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다 자신의 각인을 찍고, 또 자신을 표현한다(『훈련』 189/293 필자의 강조).” 즉, 상상력에 의한 이상적 완전성에 대한 열망은 생각과 말의 변모를 낳는다. 다음 단계는 현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되기를 결의하는(『훈련』 189-192/293-298) 윤리적 단계다. 여기서 안티-클리마쿠스는 다른 한 청년을 예로 들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좁은 길을 구별해서 서술한다(『훈련』 192-195/298-305). 이 청년은 높은 곳에서 그를 자기에게로 이끄는 분(섭리, 사랑)의 모범을 따른다. 그 원형(*Forbillede, prototype*)과 하나가 되려는 사랑이 닮은 존재로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여, 청년은 “한 걸음 한 걸음 변모되어 가서(*his whole deepest inner being be transformed*) [...] 그 모습과 닮아가는 모양을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훈련』 193/300 이하, 필자의 강조).” 이때 변형되는 것은 그의 내적 존재다.

안티-클리마쿠스는 이 비유에서 인간의 상상력과 신의 섭리가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보여 준다. 상상력이 주도하는 초기에도 그 배후에는 섭리가 있다. 다만 자연적, 직접적 인간은 처음부터 섭리에 의해 인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상력이 최초의 교사 구실을 맡는 것이다(『훈련』 186/288). 섭리를 깨닫고 이끌림 받는 단

계에서도 상상력은 보조적인 위치로 물러서지만, 불완전하나마 이상과 모범의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정열이 위축되지 않도록 돕는다. 현실을 재현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상상력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이 완전성에 이끄리도록 매료하고,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이상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구실을 한다.

키에르케고어/안티-클리마쿠스가 비판하는 것은 상상력이 주는 비현실적 환영에 안주하는 것이지 상상력 자체가 아니다. 사실 키에르케고어만큼 상상력에 정통하고, 그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상가는 드물 것이다. 그가 심미적 저술들을 이중-반영의 한 축으로 삼은 것은 그것을 매개로 독자들을 윤리-종교적인 것으로 이끌고자 함이다. 심리학적 실험은 그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고안된 가장 고양된 형태의 문학적 전략이다. 그 정점을 이루는 『단계들』을 끝으로 제1군인 심미적 저술의 간접전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종교적 저술들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인생 초기의 교사인 상상력이 섭리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와 상응한다.⁶¹⁾ 또한 상상력과 섭리가 위상을 바꾸며 인생길 내내 협력하듯, 심미적 저술 시기에는 종교적 강화들이, 종교적 저술 시기에는 심미적 소논문이 병행 출판됨으로써 이중성이 유지됐다. 결국, 키에르케고어의 저작술의 핵심은 심미적인 것과 윤리-종교적인 것의 변증법적 이중 운동에 있으며, 심리학적 실험은 모순의 한 축인 심미적인 것의 정점에 위치한다.

‘심리학적 실험’은 19세기 덴마크의 심리학과 동시대 문학적 조류를 모르고서는 다루기 어렵다. 동료 연구자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한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간접전달과 관련된 미번역 자료들의 덴마크어 원전을 참조한 「키에르케고어의 간접전달」과 「단독자」의 역주 해제(표재명)의 도움이 컸다. ‘간접전달’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을 고찰하는 데 집중한 탓에 심리학적 실험의 실례 분석에는 지면을 할애하지 못했다. 아쉽지만 후속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죽음에 이르는 병』의 가명 저자로 알려졌던 안티-클리마쿠스를 간접전달의 핵심 이론가로 재조명한다. 간접전달 연구를 위해서는 『후서』, 『일지』, 『철학의 부스러기』와 더불어 『훈련』이 필수 자료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훈련』을 읽으면서, 실존의 세

61) 최안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관집』, pp. 288-289 참조.

영역의 정점에 있는 인물답게 안티-클리마쿠스가 산 정상에서 전체를 조망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키에르케고어 저술의 '중지'를 표현하는 최종적 발언으로서 『훈련』의 가치가 재발견되기를 바란다.

* 논문투고일: 2019년 4월 15일 / 심사기간: 2019년 4월 16일-2019년 5월 10일 / 최종게재
확정일: 2019년 5월 11일.

참고문헌

- 최안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관점』, 임춘갑 옮김, 다산글방 2007 (『관점』).
- _____, 『사랑의 역사(役事)』, 임춘갑 옮김, 다산글방 2005.
- _____, 『신앙의 기대』, 표재명 옮김, 프리칭아카데미 2009.
- _____, 「단독자-나의 저작활동에 관한 두 개의 메모」,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 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표재명 옮김, 프리칭아카데미 2010, pp. 132-174 (『단독자』).
- 유영소,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실험」, 『미학예술학연구』 54집, 2018, pp. 135-170 (DOI: 10.17527/JASA.54.0.05).
- 표재명, 「키에르케고어의 간접전달」, 『키에르케고어 연구』, 지성의 샘 1995, pp. 233-257.
- _____, 『키에르케고어의 단독자 개념』, 서광사 1992.
- 하선규, 「키에르케고어 철학에 있어서 심미적 실존과 예술의 의미에 관한 연구-『이것이냐/저것이냐』, 『불안의 개념』, 『반복』, 『철학의 조각들』을 중심으로」, 『미학』 76권 (2013), pp. 219-268 (UCI: G704-000246.2013..76.005).
- Kierkegaard, Søren, *Christian Discourses: The Crisis and a Crisis in the Life of an Actress*,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CD).
- _____,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 to Philosophical Fragments*, vol. I, II,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CUP).
- _____, *Fear and Trembling/Repetition*,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공포와 전율/반복』, 임춘갑 옮김, 다산글방 2007 (FT/R).
- _____, *The Moment and Late Writings*,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M).

- _____, *Practice in Christianity*,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그리스도교의 훈련』, 임춘갑 옮김, 다산글방 2005 (**PC**).
- _____, *Philosophical Fragments/Johannes Climacus*,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철학의 부스러기』, 표재명 옮김, 프리칭아카데미 2007 (**PF**).
- _____, *Søren Kierkegaard's Journals and Papers*, vol. I-VII,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Bloomington/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7-1978 (**JP**).
- _____, *Sickness Unto Death: A Christian Psychological Exposition for Upbuilding and Awakening*,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죽음에 이르는 병』, 임규정 옮김, 한길사 2007 (**SUD**).
- Stewart, J., S. M. Emmanuel, & W. McDonald (eds.), *Kierkegaard's concepts: Tome I: Absolute to Church*, KRSRR vol. 15, New York: Routledge, 2016 (2013). (**KCI I**) * KRSRR - Kierkegaard Research: Sources, Reception and Resources.
- _____, *Kierkegaard's concepts: Tome II: Classicism to Enthusiasm*, KRSRR vol. 15, Surrey: Ashgate Publishing 2014 (**KCI II**).
- _____, *Kierkegaard's concepts: Tome III: Envy to Incognito*, KRSRR vol. 15, Surrey: Ashgate Publishing 2014 (**KCI III**).
- _____, *Kierkegaard's concepts: Tome V: Objectivity to Sacrifice*, KRSRR vol. 15, Surrey: Ashgate Publishing 2015 (**KCI V**).
- Stewart, Jon Bartley & Katalin Nun (eds.), *Kierkegaard's Pseudonyms*, KRSRR vol. 17,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2015 (**KPI**).

국문 초록

본 연구의 주제는 ‘간접전달로서 심리학적 실험’이다. 심리학적 실험은 키에르케고어의 간접전달의 한 범주다. 전체 저술에서 명시적으로 ‘심리학적 실험’ 형식을 취하는 것은 『반복: 실험적 심리학의 시도』와 『인생길의 여러 단계들』의 3부 “‘유죄냐?’/‘무죄냐?’: 수난 이야기, 프라테르 타키투르누스에 의한 상상의 심리학적 구성’, 두 편이다. 이 두 작품은 상상의 심리학적 구성(실험)을 실행하는 창작자와 창조된 인물이 명확히 구분된다. 심리학적 실험은 이중적으로 반영된 전달로서, 독자에게 모순을 제시하여 주체적인 자유의 선택을 하도록 자극한다. 본고는 그리스도교적 관점을 재현한 가명의 저자 ‘안티-클리마쿠스’의 시각에서 ‘실험’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안티-클리마쿠스의 『그리스도교의 훈련』은 간접전달을 다루는 주요 저술 중 하나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훈련』을 중심으로 간접전달의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학적 실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본론 II장은 질적으로 대립된 모순을 제시하는 간접전달의 이중운동을 실존의 변증법적 운동과 연관하여 고찰한다. III장의 1절은 안티-클리마쿠스의 관점에서 간접전달의 모체인 그리스도교의 진리 개념과 직접전달의 불가능성을 살피고, 2절에서는 간접전달의 두 가지 방법과 목적을 다룬다. IV장은 『반복』과 『후서』를 주로 참조하면서 간접전달로서 심리학적 실험의 특징을 정리한다. 결론에서는 상상력에 대한 키에르케고어/안티-클리마쿠스의 관점에 비추어 심리학적 실험이 전체 저술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밝히는 것으로 논의를 맺는다.

핵심어

가명(익명), 간접전달, 미행, 상상의 심리학적 구성, 심리학적 실험, 안티-클리마쿠스, 이중반영, 키에르케고어

ABSTRACT

A Study on S. Kierkegaard's Psychological Experiment as Indirect Communication

Young-So Yoo*

The subject of this essay is S. Kierkegaard's psychological experiment(or imaginary psychological construction) as a category of indirect communication. The most typical examples of Kierkegaard's works on this subject are found in Constantius' *Repetition: A venture in experimenting psychology* and Taciturnus' "'Guilty?"/"Not guilty?" A story of suffering, An imaginary psychological construction". Both pseudonyms develop an imaginary construction to activate the inwardness of reader. As a core category of indirect communication the imaginary construction has the ultimate goal of relating an individual to God. The first explicit appearance of indirect communication in the Kierkegaard's authorship is in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 But indirect communication is more explicitly treated in Anti-Climacus' *Practice in Christianity*. In the framework of Kierkegaard's work, Anti-Climacus representing the Christian standpoint is a higher pseudonym as compare to the earlier esthetic pseudonyms. In *Practice in*

* Hongik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B5A02026647)

Christianity Anti-Climacus provides an illumination of indirect communication as well as Kierkegaard's other crucial categories. This study will enlighte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experiment in Kierkegaard's authorship, clarifying a major set of concepts related of indirect communication in Anti-Climacus' viewpoint.

Key Words

Anti-Climacus, double-reflection, imaginary psychological construction, incognito, indirect communication, pseudonym, psychological experiment, redoubling, reduplication, Søren Kierkegaard